

# 디즈니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 연구

류다영

중원대학교 글로벌언어교양학부

## Performative Gender Identity of Women in Disney Animations

Da-Young Ryu

Division of Global Languages 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약** 영상미디어의 한 장르인 애니메이션은 여러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매체이며, 그 시대의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표현되고 있는 젠더 정체성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어 왔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남성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등의 이분법적 젠더 수행성을 고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외모는 항상 아름답게 표현되었으며 이로 인해 죽음을 면하고 남성의 사랑을 받아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던 중 여성의 영웅적인 역할을 강조한 '포카혼타스'나 '물란'을 통해 이분법적 젠더 수행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겨울왕국'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여성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남녀 사이의 사랑이 아닌 자매애를 통하여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됨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규범에 맞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를 표현한 '겨울왕국'은 변화된 젠더 수행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Animation is a medium that can be enjoyed by many age groups, and it often reflects the discourse and ideology of the time. Therefore, studying the tendency of gender identity as it is expressed in animations is meaningful as a process to understand current trends. Therefore, I examined how the female characters' performative gender identity has been expressed in Disney animations and how it has changed. Disney animations have stuck to dichotomous gender performance, with men playing active and adventurous roles, while women play submissive and passive roles. Disney began to deviate slightly from the dichotomous gender performance through "Pocahontas" and "Mulan", which emphasized the heroic role of women. However, these animations have been limited in the way that love stories between men and women make up the main theme. In "Frozen", however, women actively explored their lives by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and expressed their happiness through sisterhood rather than love between men and women. Therefore, "Frozen," which expresses an active female character who sets up her own kingdom as an independent entit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monstrated the changed gender performance.

**Keywords** : Disney Animation, Female Character, Frozen, Gender Identity, Gender Performance

---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Jungwon Univ.)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August 16, 2019

Revised October 2,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 1. 서론

애니메이션(Animation)이라는 영상미디어 장르는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요즘은 언어를 배우기도 전부터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통하여 이러한 영상매체에 노출된다. 자아가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사고를 함에 있어 외부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젠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 시기에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의 젠더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뿐 아니라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어린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들도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감이 없이 즐기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젠더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지역, 문화,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소재를 차용하여 디즈니식의 변형을 거쳐 범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이 되었다[1].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당시 사회의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표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디즈니의 가치관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 캐릭터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표현된다. 그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젠더의 수행적 정체성을 살펴보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주로 남성이 맡은 반면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역할은 여성이 맡아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은 아동에게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인 젠더 정체성을 주입하기 쉽다. 즉, 남자 아이들은 용감하고 현명한 왕이나 왕자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고, 여자 아이들은 이야기 속 공주들처럼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고 헌신하다가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모델로 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 캐릭터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공주인 경우가 많은데, 1937년에 제작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를 시작으로 '신데렐라(Cinderella, 1950)', '잠자는 숲속의 공주(Sleeping Beauty, 1959)',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1989)',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1992)', '알라딘(Aladdin, 1993)', '포카

혼타스(Pocahontas, 1995)', '노틀담의 꼽추(The Hunchback of Notre Dame, 1996)', '물란(Mulan, 1998)', '공주와 개구리(The Princess and the Frog, 2009)', '라퐁젤(Tangled, 2010)', '겨울왕국(Frozen, 2013)'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캐릭터가 공주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는 아름다운 백인이며 왕과 왕자에 의해 보호와 간섭을 받는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주었다. 이처럼 디즈니가 표현해 온 인종주의와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는 아동에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인종차별, 나아가 세계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는 '포카혼타스'와 '물란'에 이르러 차츰 변화를 가져와 백인이 아닌 혼혈아가 등장하기도 하였고,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에서 지혜로우며 자기주장이 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크고 작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왕자와 결혼해 행복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포카혼타스'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않았으나 주요 내용이 남녀간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등 한계를 보여주고 만다. 여기에 2013년 개봉한 '겨울왕국'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여성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두 공주 엘사(Elsa)와 안나(Anna)는 과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공주들과 달리 왕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다리거나 왕자와의 결혼만이 목적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공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부한 사랑이야기가 아닌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 성장 등의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 아동들 뿐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몰입하여 볼 수 있는 매력을 보여준다. 이는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의 전형적인 젠더 정체성이 어떠했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젠더의 수행적 정체성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젠더의 수행적 정체성

'성(性)'을 표현함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젠더

(gender)'와 '섹스(sex)'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사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젠더'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생물학적 성'과 구별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 정의하는 것이다[2]. 주디스 버틀러(Judice Butler)는 생물학적인 성차를 표현하는 것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온 사회적 성별을 지칭하는 것이 젠더이며, 젠더는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이라는 일정한 시간을 거쳐 점차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이라고 하였다[3]. 또한 역사학자인 조앤 스콧(Joan Scott)은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신체에 부과된 기반위에 '문화적으로 구축'된 '완전한 사회적 산물'이며 또한 젠더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근본적 방법이다"라고 하였다[4]. 이것은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난 남성과 여성의 젠더 수행성은 사회로부터 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성역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젠더는 수행적으로 생산되고 강제되기 때문에 명사적 의미로 보기 보다는 목표로 하고 있는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언제나 행위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처음 페미니즘이 시작되었을 시기에는 가부장제적인 남성의 권력에 대항하고 공격하기 위해 여성들끼리의 동질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의 포스트페미니즘에서는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젠더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포스트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버틀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연적인 섹스(sex)의 구성물인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부정하며, "섹스는 언제나 젠더"였다고 주장한다[3]. 이에 젠더의 정체성은 수행적(performative)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행위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과정 중에 주체가 있다고 말한다[3]. 그녀는 수행성(performative)과 수행(performance)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행에서 행(doin)이란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다. 즉 행동을 하는 주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수행성은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5]. 다시 말하면, 수행성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동성애, 이성애, 레즈비언, 게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계를 허물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생산해가는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젠더라는 표현에는 이에 대한 실제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정체성이란 수행적으로 표현

되어지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 젠더의 연결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은 각자가 오랫동안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수행적 효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행동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행동양식을 반복함으로써 젠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빠르게 흐르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이에 맞추어 변화하였으며, 버틀러는 젠더의 수행성이 "문화적, 정치적 접점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가변성을 띄어왔다"[3]고 말한다. 이처럼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수행적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반발은 이원론적인 틀에 의해 남성 지배구조와 이성애적 권력 체계를 강화에 대한 거부와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버틀러는 가부장적인 권력이 성을 이분화하며 이성애적인 사고방식을 지속해오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성 정체성 개념의 해체를 주장한다[6]. 사회는 여성들에게 여성의 성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아를 형성해 나가도록 강요하며, 남성은 남성들의 고유한 성역할을 수용하여 자아를 이루도록 요구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강하고 적극적인 이미지의 남성 캐릭터와 수동적이고 아름답고 우아한 이미지의 여성 캐릭터 사이의 사랑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용감하고 영웅적인 남성과 순진하고 연약한 여성이라는 고정적인 젠더 수행성을 보여준다.

버틀러가 주장하는 여성 범주 해체는 단순히 이러한 성 이원론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여성적 정체성을 이성애라는 범주에 강제적으로 구속시키려 하지 말고 이원론적 젠더 관념에 깔려있는 권력적 작용에서 이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주장하는 여성 범주 해체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하여 용어 자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범주 자체와 구성 과정 등을 전제로 하여 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가지려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7]. 즉, 그녀는 이원화된 구성을 규범화해서 이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젠더의 사회적 구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젠더 정체성은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일관되게 구성되지 않는 복합적이며 다변적이다. 이에 따라 여성 젠더의 해석적 정의는 완전히 개념화되지 않으며 복합성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 2.2 이원적 개념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

### 2.2.1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

이원적인 개념에 의한 성 고정관념을 지닌 사회에서는 남성은 '남성스러워야'하고, 여성은 '여성스러워야'하고 말한다. 여기에서 여성답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 여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유순하여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즉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회는 착한 성품을 가진 여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남편과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성을 위대한 여성으로 여긴다. 따라서 그 동안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를 살펴보면 수동적으로 남성의 사랑을 기다리고, 옆에서 조신하게 남성의 일을 도우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디즈니의 첫 작품인 '백설공주'에서부터 나타난다. 백설공주는 계모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쫓겨나지만 한 번도 반항을 하거나 성으로 돌아오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단지 일곱 난쟁이의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왕자의 구원을 받는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는 계모와 의붓언니들의 지속적인 학대에도 단 한 번 반기를 들지 않고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면서 계모와 언니들이 가는 파티에 자신도 가고 싶다는 의견조차도 말하지 못한다. 게다가 왕자가 자신을 찾아 해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등 수동적인 캐릭터인 표본이다. 하지만 결국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아내고 결혼하게 되어 행복해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닌 능력 있는 백마 탄 왕자와 같은 남성의 힘을 얻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여성의 심리상태를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라 명명하게 된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콜레트 다울링(Colette Dowling)이 남성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능력으로 인해 신분상승을 누리려는 여성의 의존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이다[8]. 이는 여성의 창의성과 의욕을 무시하고 억압시키는 심리상태이며, 여성 내면의 의존적인 심리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경우에서도 공주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누워서 왕자의 키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기만 해야 하며, '인

어공주'에서도 인어공주는 자신이 왕자를 구했다는 사실조차도 말하지 못하면서 왕자를 위해 희생하고 그의 사랑을 받아 인간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라푼젤은 언제나 마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기꺼이 머리를 풀어 내리고, 마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착한 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연약하고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상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다.

이처럼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이 영웅과도 같은 중요한 일을 행하는 동안 그들을 돕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하는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여성의 지성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는 현대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여자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자신들은 수동적 존재이고 자신을 구해줄 남자를 기다려야하는 공주와도 같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자 아이들은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배우고, 순종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등의 가치관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

여성스럽다는 표현에는 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인 욕망이나 표현이 자유스러운 여성들은 천박하고 상스러운 사람들로 치부되며, 성의 욕구를 억제하고 순진무구한 성향을 여성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9]. 그러므로 언제나 성적 행위를 주도하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여성은 성적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까지도 느끼게 된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순응해야함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주입받는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남녀의 키스 행태를 보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캐릭터는 주로 수동적으로 남자의 키스를 기다리지만 키스를 원하고 바란다는 표현을 하지는 못한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공주는 왕자가 나타나 키스를 해야 잠에서 깨어나는 마법에 걸려 왕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인어공주'에서도 인어공주는 왕자의 키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여성은 성적 욕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성이 성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것이 여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자 주인공이 항상 키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이는 이야기의 배경이 중세 시대인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황을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이 절대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키스는 죽어가는 여성을 살리는 역할도 하며, 고통스럽고 힘든 여성 캐릭터들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이야기를 해피 엔딩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왕자의 키스는 백설공주를 살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여성캐릭터는 남성의 키스에 의해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남자가 하는 키스는 사랑을 상징하며, 여자는 남자의 키스 즉, 사랑을 받아 결혼하여 행복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표현되는 당대의 고정관념은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받아 결혼을 해야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애니메이션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의 삶이란 결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공주로 태어난 여성은 왕자와의 결혼으로 안락한 삶을 이루고, 신데렐라처럼 평범한 신분의 여성 또한 왕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공주 대접을 받으며 부와 지위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인어공주 역시 왕자와의 결혼을 통해 온전한 인간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 따라서 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종속되며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성 고정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수동적 태도인데 반하여,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강한 성격을 가진 여성들은 마녀로 양극화를 시킨다. 이러한 마녀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지배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마법을 통해 적극성을 보이는 여성이다. 결국 이들은 사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원적 개념의 여성 이미지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식을 내재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 2.2.2 아름다운 외모의 주인공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의 순종적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는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이다. 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은 왕자의 사랑을 받아 결국 결혼에 이르게 하여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금발의 날씬하면서도 글래머러스한 외모를 가진 아름답고 젊은 백인 여성들이다. 따라서 남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그러한 외모를 보고 첫 눈에 반하게 된다.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피부, 앵두처럼 붉은 입술, 칠흙 같은 검은 머리를 가진 공주이다. 이러한 백설공주를 처음 본 왕자는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공주의 인간적인 내면의 심성을 본 것이 아닌 백설공주의 성적매력, 즉 외모에 의해 도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필립왕자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 만났을 뿐인 시골처녀와의 결혼을 고집한다. 필립왕자는 결혼을 통해 가난한 시골의 여인을 가난과 고난에서 구해내고자 하는데, 이 또한 그녀의 외모에 도취되어 사랑에 빠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어공주'의 에리얼(Ariel) 공주는 하반신이 비록 물고기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긴 머리의 미녀로 묘사되고 있으며, 원작 동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에서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결말을 이룬다. '신데렐라'에서도 왕자는 신데렐라를 처음 보자마자 그녀의 매력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홀리고 간 구두의 주인을 찾으며 온 나라를 돌아다니게 된다. 신데렐라와 잠깐 춤을 추는 사이에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왕자는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퐁젤'에서 라퐁젤은 하얀 피부에 큰 눈망울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눈부신 금발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또한 이 머리카락은 젊음을 유지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길고 눈부신 금발의 백인 여성은 서구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며, 늙는 것을 죽음과도 같이 여기는 마녀를 통해 여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유물과 같은 존재가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인간적인 내면이 아닌 단순히 외모에만 치중하여 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대체로 아름답고 착한 여자 캐릭터는 주인공으로, 악하고 못 생긴 여자 캐릭터는 부수적인 악역으로 내세움으로써, 은연중에 아름다움은 옳고 착함을, 추한 외모는 그릇되고 악함을 연상시키는 왜곡된 이분법적 인식을 고착화시켰다[10]. 따라서 디즈니 여성 캐릭터를 통해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내면도 아름답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또한 페미니즘 시각에서 바라

보면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로지 외모적 아름다움에 국한될 수 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애니메이션 속 여성캐릭터들의 아름다움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무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름다운 외모가 젠더 수행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백설공주'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냥꾼의 동정심을 얻어낼 수 있었고, 난쟁이들도 그녀를 자신들의 집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한다. 백설공주는 살아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아름답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의 외모는 남성이 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아름다움은 남성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설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아름답다는 것은 남에게 관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특혜이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으로써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외모가 아름답고 날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아름답지 않은 여성은 하녀, 유모 또는 마녀 등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 외적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의 큰 형벌처럼 느껴지게 하여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사악한 일도 행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은 여성의 이미지를 단순히 선과 악, 미와 추 등의 이분법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접한 어린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외모가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게 되고, 여자는 항상 예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움과 젊음이 사라지게 되면 '백설공주'의 마녀처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나쁜 짓이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여성이 늙게 되면 모든 여성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및 상품화로 전락시켜 아름다운 여성은 남성이 원하는 소유물이 될 수 있고, 남성의 성공과 권력을 빛내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이준수는 여성의 상품화는 일상적인 실천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외모와 신체의 일부는 언제나 성적인 시선과 상품화된 언어로 읽혀진다는 것은 여성이 얼마나 성애화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1]. 따라서 여성은 항상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갈구해야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다.

## 2.3 여성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의 변화

### 2.3.1 남성의존성에서의 탈피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자와 같은 상류층 신분의 남성이 여성 캐릭터가 처해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한다는, 다시 말해서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는 대표적인 결말을 이룬다. 이러한 결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표출해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규범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성의 이원론적 관념을 충실히 따라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젠더 수행성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이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남녀에게 다른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보필하며 성적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는 성모마리아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젠더 수행성은 '포카혼타스'나 '물란'과 같은 작품에 이르러서 여성의 영웅적인 면을 강조하며 작은 변화를 보였다. 이 두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며 운명을 개척해가는 영웅과도 같은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의 도움에 많이 의지하며 남성에게서 받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표현되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결국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젠더 수행성은 남성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젠더 수행성을 보여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겨울왕국'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선 이 작품은 그 동안의 남녀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 여성들 사이의 사랑과 연대, 즉 자매애를 보여준다[12]. 아렌델 왕국(Kingdom of Arendelle)의 첫째 공주인 엘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동생인 안나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바로 그 눈물이 안나를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설정은 남성만이 여성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깨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키스로 인해 여성에게 걸린 저주가 풀리고 남성에 의해 행복을 얻게 되는 것과 달리 여성이 다른 여성을 구할 수 있음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엘사와 안나와의 관계를 이성애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매간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여성들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동성애적인 사랑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을

떠나 엘사와 안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젠더 정체성의 표상이며, 남성들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활동을 이끌어가는 수행성을 보여준다. 즉, 전통적이고 진부한 젠더 표상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수행적인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 저변에 깔려있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젠더 담론을 반영한 새로운 젠더 표상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보여주었던 젠더 표상과는 차별적인 의미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3].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달리 엘사가 단순한 마녀로 끝나지 않고 좋은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동생 안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왕국’에서 엘사와 안나를 이어주게 한 것은 결국 이들의 끈끈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엘사와 안나는 아버지인 왕과 한스왕자와 같이 남성들의 영향과 방해받지만, 자매애를 통해 과업을 완수하며 남성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해방되게 된다. 더 이상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 안나는 한스 왕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먹을 날리고, 언니를 찾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크리스토프에게 먼저 키스를 할 정도의 대범함을 보여준다. 남성의 권한으로 여겨졌던 키스를 여성이 먼저 하는 것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안나는 크리스토프를 사랑하지만 그 동안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공주들처럼 그와 결혼을 하지는 않는다. 오직 결혼만이 여성 행복의 종착지라는 의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간택을 받아 이루어지는 결혼의 양상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결국 엘사와 안나를 통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바로 세우고 권력을 지키는 여성의 힘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2.3.2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새로운 여성상

엘사는 어린 시절 자신이 행한 마법으로 동생 안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마법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엘사는 왕과 왕비에 의해 격리 조치를 당하고 동생인 안나와 자유롭게 만나거나 대화 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엘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로 표현된다. 엘사의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마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녀의 손에

장갑을 끼워준다. 그는 엘사에게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하고(Concealed), 느끼지 말아야하며(Don't feel),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Don't tell the truth) 충고를 한다. 외부와 소통할 수 없이 방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엘사는 사랑하는 동생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긴 세월을 보낸다. 이 둘 사이의 그리움과 자매애는 잠긴 방문을 사이에 두고 문에 기대 앉아 서로에게 부르는 노래로 알 수가 있다.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I never see you anymore.  
Come out the door.  
It's like you've gone away.  
We used to be best buddies. [14]

눈사람 만들고 싶어?  
자, 어서 가서 놀자!  
난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어.  
문 밖으로 나와.  
네가 멀리 가버린 것 같아.  
우리는 좋은 친구였잖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애뜻함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답답함도 엘사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감정을 누르며 방안에 갇혀 살아간다. 엘사의 억눌린 감정은 왕과 왕비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왕위 승계 대관식에서 발현된다. 드디어 서로 얼굴을 보게 된 엘사와 안나는 기뻐하지만, 안나가 대관식 날 만난 한스 왕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언니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겨울왕국’ 초반부에서 안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의 남자를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젠더 수행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엘사는 “방금 만난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면서 기존의 착하고 순종적인 여성들과는 다르게 결혼이 무조건 여성의 행복과 연결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안나의 돌발적 선언으로 인해 엘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분출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온 나라가 겨울로 변하여 얼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왕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엘사의 이러한 행동은 그 동안 왕자와 결혼해야 행복해진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전개상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엘사는 감추어왔던 마법을 결국 사용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괴물취급을 받게 되고 이를 피해 먼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 하지만 도망가는 도중에 보이는 엘사의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힘찬 이미지를 풍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항상 착한 여자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 당시의 규범에 맞선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준다.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m free [15]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야  
한계를 시험하고 뚫고 지나가겠어  
이제 내겐 옳고, 그른 것도,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망친 엘사는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완벽한 여자는 없다(That perfect girl is gone)라고 말하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The past is the past) 이제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로 한다[15].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정상과 비정상 개념, 남자와 여자라는 젠더 역할의 분리규정에 의해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존재로 규정지어지는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엘사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음으로써 체제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를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묶여있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새롭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엘사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모습을 표현해준다. 나약한 모습을 떨쳐버리고 남성의 도움 없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여성의 수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엘사와 비교되는 인물은 엘사의 여동생 안나이다. 안나는 순진하고 수동적인 전통적인 여성상을 초반부에 보여준다. 그녀는 왕궁에 있으면서 멋진 왕자님을 만나기를 꿈꾼다. 세상을 잘 모르는 안나는 대관식날 만난 한스 왕자를 보고 바로 그에게 빠져들게 된다. 안나가 원하는 것은 왕자와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자신을 폐쇄된 왕궁에서 구해줄 것이라 믿는다. 사라진 엘사를 찾아가는 중에도 안나의 행동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절벽을 제대로 기어오르지도 못하고, 괴물을 만났을 때에도 검을 들고 싸우지도 못하는 등 연약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을 반대하고 온 나라를 얼어붙게 만든 언니지만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와 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기존 여성 캐릭터와 다른 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녀가 엘사를 찾으러 나갈 때 한스 왕자가 같이 가려고 하자 그에게 기대려하지 않고 아렌델에 남아 달라고 요구하며, 엘사를 찾는 중에 겪는 시련을 씩씩하게 헤쳐 나가는 모습은 적극적인 현대의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안나는 언니를 설득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얼음성 안으로 들어가는 등 주도적으로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기존의 남성의존적인 여성들과는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16].

독립적이고 당당한 엘사와 안나의 모습은 여성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여성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을 작품 속에 반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16]. 엘사와 안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서 남성들이 주로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과업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여성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에 큰 변화를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 3. 결론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전 연령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상 미디어로 발전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이 인기를 누리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 중에서 디즈니는 오랜 세월동안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으며,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큰 인기를 누려왔다. 남녀평등을 내세우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지양하며, 동등한 지위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남성과 여성의 젠더 수행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주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맡고, 여성은 주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적 이데올로기와 젠더 정체성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주입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캐릭터들의 젠더 정체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행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시작으로 많은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보수적인 전통에 따라 고정적인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를 표현해왔다. 이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여성스러운'이라고 규정지어진 골레에 갇혀 주로 수동적이고 유순한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움 외모에 의해 왕자의 사랑을 받는 젠더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 캐릭터의 외모는 서양 미인의 기준에 맞게 날씬하고 글래머러스한 백인의 금발머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남성 중심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외모지상주의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다. 게다가 여성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에 의한 것이 아닌 외모에 치중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의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행복한 삶에 이른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및 상품화로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포카혼타스'나 '물란'을 시작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포카혼타스나 물란은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젠더 수행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디즈니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남성 주인공을 만나 결혼하여 행복해진다는 진부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디즈니의 가치관은 '겨울왕국'에 이르러 남성중심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수행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스스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겨울왕국'은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의 결혼에 의해서 행복을 얻게 되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버렸다. 대신 두 여성의 자매애를 통해 여성이 다른 여성을 살려낼 수 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갔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인 'Let It Go'의 노래 가사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규범에 맞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능동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여성 캐릭터의 모습은 변화된 여성의 젠더 수행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겨울왕국'이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성 고정관념과 남성중심 가치관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아버지의 권력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안나가

언니 엘사를 구하러 가는 중에도 남성의 도움에 많이 의존하는 등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겨울왕국2'를 현재 제작하는 중에 있고 곧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림에 따라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들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엘사와 안나의 주체적인 삶이 좀 더 발전되어 표현되기를 기대해본다.

## References

- [1] S. J. Lim, J. H. Lee, "The Changes in Social Stereotypes against Wome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Female Character Animation-Focusing on Disney's Frozen",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2016, No.5, pp.10-111, 2016.
- [2] J. G. Lee. *Nation and Gender-The Theory and Practice of Gender Mainstreamization*, Hanwool Academy, 2010, pp.20-150.
- [3] J.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Y: Routledge. 1990, pp.7-180.
- [4] J. W. Scot, translated by H. Y. Song,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Korean Literature*, Vol.31, No.-, pp.291-326, 1996.
- [5] S. O. Suh, *A Study of Judith Butler's Queer Theory and Toni Morrison' Sula*, PhD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p.48, 2001.
- [6] J. Butler, "Imitation and Gender Insurbodination" *Lesbian and Gay Studies Reader*, pp.307-320, 1993.
- [7] J. Butler, "Contingent foundations: Feminism and the question of postmodernism", *Feminist contentions: A Philosophical Exchange*, pp.35-58, 1995.
- [8] C. Dowling. translated by Y. M. Kim, *Cinderella Complex*, Eulyoo Publishing, 1991, p.293.
- [9] A. M. Sohn, *A Study on Sex Stereotypes as Represented in the Western Fairy Tales*, Ma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17, 1996.
- [10] H. G. Kwon, "Breaking the Magic Spell: The Subversion of the Political Strategies of Disney Animations in Shrek 1 & 2", *The Korean Association of Literature and Film*, Vol.6 No.2, pp7-24, 2005. DOI: [G704-001318.2005.6.2.007](https://doi.org/10.7704/001318.2005.6.2.007)
- [11] J. S. Lee, "A Study on the Changes of Gender Identity Found in the Character of Elsa on Frozen - Focus on Queer Theory", *Korean Society of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Vol.-, No.38, pp.1-28, 2015. DOI: <http://dx.doi.org/10.7230/KOSCAS.2015.38.001>
- [12] S. J. Maeng, "The obvious story-maker Disney has changed in Frozen", *Media Today*, [cited Feb. 1, 2014] Available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85> (accessed Aug.7, 2019)
- [13] D. I. Oh, H. R. Choi, "A Research on Gender Discourse

of Animation Character - Focused on Female Characters of Disney Animation Frozen", *Korea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5, No.5, pp.613-620, 2014.  
DOI: <http://dx.doi.org/10.9728/dcs.2014.15.5.613>

- [14] Kristen Bell(singer),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Frozen Original Sound Track, 2013.
- [15] Idina Menzel(singer), 'Let It Go', Frozen Original Sound Track, 2013.
- [16] J. S. Kang, "A Study on Gender Identity of Women in Frozen",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 Vol.-, No.37, p.173-192, 2015.

---

류 다 영(Da-Young Ryu)

[중신회원]



- 2000년 2월 : 성균관 대학교 교육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글로벌언어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드라마, 영어교육, 문학과 치유, 문학과 젠더